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쉐마' 로 알려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신6:4-5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성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처럼 개인마다 각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모두 사람들이 깎아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신4:28).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시며 종말 후에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 길을 찾게 되고 스승의 말을 들으면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깡패의 말을 들으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고 이단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찾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이와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분의 마을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서 훈계하듯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일깨우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5장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이 기초가 되는 계명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6:12).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었을 때 그 분의 위엄 앞에 떨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섬김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십니다.

네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되 경솔하지 않고 진중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우상들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이나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광야 모든 곳에는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우상들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우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은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0:9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